

李奎報의 詠物詩의 題材와 內容

孫 政 仁

<目 次>

I. 머리말

II. 詠物詩의 概念과 範疇

III. 李奎報의 詠物詩의 題材

IV. 李奎報의 詠物詩의 內容

V. 맺음말

I. 머 리 말

漢詩史上 詠物詩만큼 널리 愛好・創作된 詩體도 드물 것이다. 漢詩의 경우에서 人情과 物態는 天然交融하므로 物我의 限界라는 것이 그리 분명치 않다. 漢詩에서 常用되는 手法은 ‘託物以起興’, ‘擬人以比況’, ‘就物以賦志’ 등등인 바, 순전히 人情과 世事만을 읊은 작품은 비교적 적은 편이며, 따라서 詠物詩가 量的으로 가장 많은 편이다.” 그러므로 詩人이라면 거의 대부분이 詠物詩를 가지고 있다.

高麗中葉의 代表的 詩人인 李奎報(毅宗 22年, 1168~高宗 28年, 1241)의 경우도 예외는 아니어서 500餘首에 달하는 詠物詩를 전하고 있다. 이처럼 그의 漢詩 中 詠物詩가 量的으로 상당하다고 해서 詩의 價値 또한 반드시 그리하리라고 성급히 단언할 수는 없다 하더라도, 이규보의 關心의 向方을 보여주고 있음은 분명한 사실이다. 그러므로 2,000餘首에 이르는 방대한 量의 作品을 통해 多樣한 樣相을 보여주고 있는 그의 詩世界의 一端을 규명하기 위해서는 詠物詩를 分析・檢討할 필요가 있으리라고 본다.

이규보의 詠物詩는 일찌기 徐首生²⁾에 의해 注目되어진 이래, 柳在日,³⁾ 孫

1) 黃永武, 〈詠物詩의 評價標準〉《古典文學》第一集(中國古典文學研究會, 臺灣學生書局, 民國 68年), p. 159.

2) 徐首生, 〈白雲文學攷一특히 그의 詩를 中心으로〉《語文學》5輯(韓國語文學會, 1959), pp. 125~128. 《高麗朝漢文學研究》(螢雪出版社, 1971), pp. 129~132 再收錄.

3) 柳在日, 〈이규보 영물시에 나타난 즉물적 개방성에 대하여〉《연세어문학》13집(연세대학교, 국어국문학과, 1980).

——, 〈李奎報의 詩研究—詩論과 物과 時代의 문제를 중심으로—〉(延世大學校 碩士論文, 1982), pp. 45~57. (IV. 物을 이야기한 詩)

政仁,⁴⁾ 朴性奎⁵⁾의 論文에 이르러 일정한 성과를 거두고 있다고 하겠다. 그러나 이들 論文은 詠物詩의 概念과 範疇에 대한 친작이 없이 극히 限定된 作品만을 대상⁶⁾으로 다룬 결과, 이규보의 詠物詩를 全體的으로 眺望할 수 있는 視野를 마련하지 못했다는 점이 一次的인 限界로 지적될 수 있을 것이다.

詠物詩를 연구하려고 할 때 가장 먼저 提起되는 問題는 詠物詩의 概念과 範疇에 관한 문제일 것이다. 이러한 문제를 검토하지 아니하고, 극히 一般化된 題材를 읊은 작품만을 다루거나 詠物詩로 보기 어려운 작품까지를 포함시켜 다룬 결과로써 이규보의 詠物詩의 性格과 그 詩的 特性을 온전히 이해하기는 어려운 것이다.

그러므로, 本稿에서는 이러한 사정을 고려하여, 먼저 詠物詩의 概念과 範疇를 檢討·規定한 다음, 그에 따라 題材를 整理·分析하여 작품의 전체적인 樣相을 살펴본 후, 작품의 內容과 表現의 特性을 밝혀 보고자 한다.

Ⅱ. 詠物詩의 概念과 範疇

기왕의 辭典類와 論文에서는 詠物詩의 概念을 아래와 같이 규정한 바 있다.

① 事物을 風詠한 것⁷⁾

② 一. 事物을 風詠한 것

二. 禽, 獸, 蟲, 魚, 花, 月, 草, 木 등의 物名을 題로 하여 詩歌를 만드는 것, 또는 그 詩歌⁸⁾

③ 古樂府의 題名에 時景二十五, 山水二十三, 草木二十一, 鳥獸二十一의 이름이 보이나 모두 詠物이다.⁹⁾

4) 孫政仁, <李奎報 古詩研究>(嶺南大學校 碩士論文, 1981), pp. 100~114. (3.5 詠物詩)

5) 朴性奎, <李奎報 漢詩研究>(高麗大學校 博士論文, 1982), pp. 113~129. (詠物詩)

6) 柳在日은 구체적인 作品의 分析보다는 論說을 中心으로 접근하였고, 孫政仁은 古詩에 局限하여 考察하였고, 朴性奎는 植物詩와 琴, 酒, 竹, 菊을 中心으로 考察하였다.

7) “詠物: 風詠事物也” 《中文大辭典》卷 8(臺北, 中華學術院, 民國 68年), p. 927.

8) “詠物: 一. 事物을 風詠すること. 二. 禽獸蟲魚花月草木をとの物名を題として詩歌をつくる. 又 其の詩歌” 諸稿體次, 《大漢和辭典》卷 10(東京, 大修館書店, 昭和 35年), p. 438.

9) “詠物詩: 古樂府의 題名에 時景二十五, 山水二十三, 草木二十一, 鳥獸二十一의 名目을 入るは, 皆詠物なり” 近藤圭, 《中國學藝大辭典》(東京, 弗威文化社, 昭和 44年) p. 30.

- ④ 새, 꽃, 달, 고기 등 물건을 題材로 하여 詩歌를 지음¹⁰⁾
- ⑤ 動物, 植物, 事物 및 自然現象을 읊은 詩¹¹⁾
- ⑥ 事物을 素材로 해서 읊은 詩¹²⁾
- ⑦ 物을 素材로 한 詩¹³⁾
- ⑧ 구체적인 형상을 갖는 事物을 對象으로 하는 것¹⁴⁾
- ⑨ 어느 單一特定物을 吟詠의 題材로 한 것¹⁵⁾
- ⑩ 物을 노래한 것¹⁶⁾

이처럼 詠物詩의 概念은 區區하지만, 보다 우선적으로 해결해야 할 문제는 詠物詩의 경우 ‘物’의 範疇를 어떻게 정하느냐 하는 문제이다. 詠物詩의 概念規定은 ‘物’의 範疇를 검토한 뒤, 그 결과를 프괄하는 선에서 이루어져야 할 것이다.

清代 康熙帝 45년에 敕命으로 編纂된 486卷의 詠物詩選集인 《佩文齋詠物詩選》의 序文에는 다음과 같이 언급되어 있다.

爰自古昔遠詩漢魏六朝，洎夫有唐訖於宋元明之作，博觀耽味，掇其菁英，校理編錄，名曰佩文齋詠物詩選。蓋蒐集既多，義類咸備，又不僅如向者所云，蟲魚鳥獸草木之屬而已也，若天經，地志，人事之可以物名者，罔弗列焉。¹⁷⁾

《佩文齋詠物詩選》은上古부터 元·明에 이르기까지 14690首의 作品을 天文, 節侯, 山, 水, 人工의 施設物, 器物, 人間行爲, 武備, 服飾, 書法, 樂器, 人間, 飲食, 樹木, 花草, 獸, 魚, 禽, 蟲……등 총 486部類로 細分하여 수록하고 있다. 이 책에서는 ‘物’을 광범위하게 받아들여 詠物詩를 상당히 擴大解釋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이 점은 朝鮮朝 後期에 편찬된 《古今詠物近體》¹⁸⁾에서도 마찬가지이다. 詠物詩에서의 ‘物’을 그와 같이 광범위하게

10) 張三植編, 《大漢辭源》(博文出版社, 1975), p. 1395.

11) 拙稿, 앞의 論文, p. 100.

12) 朴性奎, 앞의 論文, p. 113.

13) 柳在日, 앞의 論文, p. 40.

14) 梁會錫, 〈元代詠物曲研究〉《中國語文學》第4輯(嶺南中國語文學會, 1982), p. 40.

15) 李東鄉, 〈詠物詞과 辛棄疾〉金俊燁教授華甲記念《中國學論叢》(中國學論叢刊行委員會, 1983), pp. 40~41.

16) 李鍾建, 〈詠物詩考〉《士林語文研究》創刊號(馬山大學 國語國文學會, 1984), p. 78.

17) 《佩文齋詠物詩選》序, 廣文書局本, p. 4.

18) 이 책은 朝鮮朝 後期인 1861년에 劉在建이 中國(唐·宋·金·元·明·清)과 韓國(新羅·高麗·朝鮮)의 近體詠物詩를 題材別로 分類하여 편찬한 32卷17冊의 詠物詩選集이다. 편자는 2195名의 7588首의 수록 작품을 詠物의 對象物에 따라 409門으로 나누어 편집하였다. 韓國學文獻研究所 《古今詠物近體》(全4卷)(亞細亞文化社, 1981)로 影印刊行된 바 있음.

만아들인다면 거의 대부분의 詩가 詠物詩에 속하게 되어 詠物詩라는 개념 자체가 모호해진다.

이제 앞에서 언급한 2 種類의 詠物詩選集의 部類를 살펴, 제거되는 문제점들을 중심으로 詠物詩의 범주 규정을 시도해 보고자 한다.

계층적인 부류조직에 따르는 方法인 분할¹⁹⁾의 방법을 ‘物’에다 적용시킨다면, 物은 生物과 無生物로, 生物은 動物과 植物로, 無生物은 自然物과 人工物로 분할할 수 있다.

物을 이렇게 분할해 본 결과, 春, 夏, 秋, 冬과 같은 節候와 狩獵, 征伐, 從軍, 出塞 등과 같은 人間行爲에 관한 것은 그 어디에도 포함시킬 수 없다. 사실, 物은 圖畫처럼 形象화된 것을 意味하는 바,²⁰⁾ 節候나 人間行爲와 같은 非形象的, 抽象的인 것을 物로 보기는 곤란하다. 더군다나 傳統的으로 節候를 읊은 詩 中에는 季節에 따른 感懷를 詩化한 작품이 많고, 征伐, 出塞 등을 읊은 작품은 비장한 강개의 감정²¹⁾ 외에도 변경으로 떠난 님을 그리는 閨情, 望鄉의 서정²²⁾을 읊은 작품이 많다. 그러므로 이들 작품은 詠物詩에서 제외하는 것이 좋을 것이다.

그리고 山, 水, 江, 海 등은 구체적인 形象을 갖고 있기는 하지만, 이들 작품은 전통적으로 山水의 景致를 주로 描寫하고 있으므로 詠物詩의 범주에서 제외시켜, 山水 내지 自然詩로 다루는 것이 좋을 것이다.

아울러, 人工物 中에서 樓, 亭, 臺와 같은 巨大한 施設物을 詩題로 한 작품들은 人工物을 詩題로 하고 있기는 하지만, 대부분이 그 자체를 읊은 작품이 아니다. 실제 이들 작품은 높은 곳에 올라 주위의 景觀을 묘사하거나,²³⁾ 그러한 상황 속에서 느낀 感懷를 읊은 것²⁴⁾이 대부분이다. 그러므로

19) “분할은 계층적인 부류 조직의 상위에서 하위로 이행하고, 분류는 하위에서 상위에서 이행한다. 말하자면, 전자는 유계념에서 나누어 내는 데 비해서, 후자는 종계념에서 유계념을 추출해 내는 것이다.” 김열규, 《어떻게 읽고 쓸 것인가》(弘盛社, 1982), p. 154.

20) 趙熙龍은 〈詠物近體序〉《古今詠物近體》, 앞의 책, 卷1. p. 225에서 “夫上而日月雲霞風雨霜雪 下而山川草木鳥獸蟲魚 是天地大畫圖也 人亦畫圖中一物 以畫圖中物 詠畫圖中物 其語聲律 乃畫圖之笙鏞也”라고 하여 物을 圖畫와 같이 形象화된 것으로 파악하고 있다.

21) 胡雲翼, 張基謹譯, 《中國文學史》(大韓教科書株式會社, 1981), pp. 155~156.

22) 金學主, 《中國文學序說》(汎學圖書, 1976), pp. 72~76.

23) Wai-lim yip, 《Chinese Poetry-major modes and genres》(University of California Press, 1976), pp. 173~179에서 王羲之, 孫綽, 王彬의 〈蘭亭〉을 山水詩로 보고 있는 것은 그와 같은 점에 주목했기 때문일 것이다.

24) 邊成圭는 詠懷詩의 作品속에 ‘登’, ‘望’의 모티프가 빈번히 나타난다고 하였다. 邊成圭, 《阮籍詠懷詩研究》《中國文學》第9輯(韓國中國語文學會, 1982), p. 4.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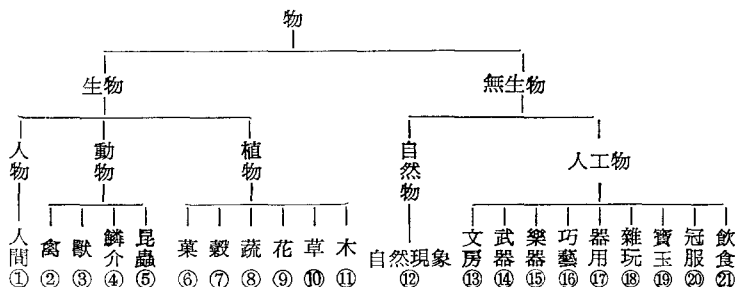
이것들도 詠物詩에서 제외하는 것이 좋을 것이다.

다음으로는 部類에 관한 문제이다. 《佩文齋詠物詩選》序文이나 《大漢和辭典》에서 말하는 것처럼, 전통적으로 詠物詩는 蟲, 魚, 鳥, 獸, 草, 木이 중심이 되고 있다. 그러나 詠物詩의 範疇를 정하기 위해서는 動物이 禽, 獸, 鱗介, 昆蟲으로 분할되는 것처럼, 植物도 菓, 穀, 蔬, 花, 草, 木으로 세부적으로 분할되어야 할 것이다.

또, 巨大한 施設物을 제외한 나머지의 人工物도 역시 그것들 상호간의 변별성과 유의성을 고려하여 文房, 武器, 樂器, 巧藝, 器用, 雜玩, 寶玉, 冠服, 飲食으로 분할할 수 있을 것이다.

끝으로, 人間 역시 하나의 物이라고 볼 때, 人間을 어떤 次元에서 파악하느냐 하는 문제가 생기게 된다. 人間이 動物에 속한다고 하여 禽, 獸, 鱗介, 昆蟲과 같은 차원에서 파악하기 보다는 動物, 植物과 대등한 차원에서 파악하는 것이 좋을 것이다.

이제, 이상에서 논의한 결과를 이해하기 쉽도록 圖式化한 다음, 그에 따라 詠物詩의 概念規定과 範疇確定을 시도해 보면 다음과 같다.



[1] 詠物詩의 概念: 詠物詩는 人物, 動物, 植物, 自然現象 및 巨大한 施設物을 제외한 人工物을 題材로 하여 읊은 詩.

[2] 詠物詩의 範疇: 人間, 禽, 獸, 鱗介, 昆蟲, 菓, 穀, 蔬, 花, 草, 木, 自然現象, 文房, 武器, 樂器, 巧藝, 器用, 雜玩, 寶玉, 冠服, 飲食.

Ⅲ. 李奎報의 詠物詩의 題材

앞에서 살펴 본 詠物詩의 範疇에 따라, 李奎報의 詠物詩를 그의 文集인 《東國李相國集》(總 53卷: 前集 41卷, 後集 12卷)中, 古律詩가 수록된 28卷

6 嶺南語文學(第12輯)

(前集 18卷, 後集 10卷)을 중심으로 卷別로 集計하여 圖表로 表示하면 다음과 같다.

卷	範疇	人 物					動 物						植 物	自然 物	人 工 物											卷 別 計		
		① 人 間	② 禽 獸	③ 介 蟲	④ 鱗 介	⑤ 昆 蟲	⑥ 菓	⑦ 穀	⑧ 蔬	⑨ 花	⑩ 草	⑪ 木	⑫ 自然 現象	⑬ 文 房	⑭ 武 器	⑮ 樂 器	⑯ 巧 器	⑰ 器 用	⑱ 雜 玩	⑲ 寶 玉	⑳ 冠 服	㉑ 飲 食						
全	1									2		4	1	1														8
	2	2				2				1			6	1			2	3										17
	3		2	1		7	1			9	2	3	2				1	2	3									33
4 ²⁵⁾																												
	5	4						3		3							1	3			2							16
	6	2	1					1					1			1												6
	7	3			1	1	1			4	1	1					1	1										14
	8															1	1	3			1							6
	9				1					1		1					1	1										5
	10	3	3	1					1	2			3				1											14
	11		1							4			1			1		2										9
	12	5	1			2				2		3	2				1											16
	13	5	1		1					5	1		4	2		2	2	5			1	5						34
	14	5	3		1	1	2	1	5	6		1	1			1		4										31
	15	1					1											2				1						5
	16	2	2	1		1	2			5		1	12				3	6				1						36
	17	3								1			1				2	6										13
	18	2	2							2			3				7											16
後	1	11		2		4		1		7		2	5					3			1	1						37
	2	2					8						4	2				1										17
	3	2	4							32		1	5										4					48
	4	1	1			7	4		6	2			1			19	4											45
	5						6			9			3			1	6	4			5	2						36
	6	1		1	1					2			1					6				2						14
	7						34	1	21	5		1	1					2				5						70
	8	3		1			2						6															12
	9		3										10					1										14
	10					2							4		1		1											8
範 疇	57	24	8	4	27		65	3	33	104	5	17	77	7	28	34	56			10	21							580
別 計	57				63							227	77									156						580

위의 결과에 의하면, 이규보의 詠物詩는 580首인 바, 이는 그가 남긴 전체 2071首의 漢詩作品 가운데 28%에 해당하는 것이다.

이규보는 武器, 雜玩, 寶玉을 제외하고는 物의 전반에 대해 두루 관심을 보여주고 있는 바, 작품의 빈도에 있어서 植物>人工物>自然現象>動物>人間의 順으로 나타나고 있다. 이중 植物은 전체 詠物詩의 39%를 차지하고 있고, 21개의 範疇面에서 보면, '花'가 전체 詠物詩의 약 18%를 차지하고 있어 가장 큰 관심의 대상이 되고 있다.

또, 이규보는 一生을 통하여 지속적으로 詠物에 관심을 보여주고 있었, 특히 老年에 이르러 집중적으로 관심을 기울이고 있다. 이점은 前集은 70歲 以前の 作品이 爲主가 되었고, 後集은 70歲 以後의 作品이 絶對多數²⁵⁾인 점에서 알 수 있는데, 後集에 수록된 301首의 詠物詩는 전체 詠物詩 580首의 51.9%에 해당한다.

이제, 物의 各 範疇別로 題材와 그에 따른 作品數를 整理하면 다음과 같다. (表記方法: 題材, 篇數, 首數의 順임)

人物

- ① 人: 老巫 1—①, 美人 6—⑥, 兒(他人의 子 1—①, 子息 3—⑤, 棄兒 1—②), 老製冠師 2—②, 僧(醉僧 2—②, 唾僧 1—①, 破戒僧 1—②), 自身(自身 2—②, 鏡中影 3—⑤, 鬢 1—①, 頭童 1—①, 井中影 1—①, 燈前招影 1—①, 坐狀 1—①), 妓(妓 4—④, 倡妓 1—①, 小妓 1—①, 老妓 1—①), 凡百人 1—①, 孀嫗 1—①, 漁父 1—④, 農夫 2—③, 醉樵人 1—①, 道士 1—①, 老將 1—①, 輓驪女 1—②, 女童 2—②.

動物

- ② 禽: 鸚鵡 8—⑧, 子規 1—①, 鷄 3—③, 鵲 1—①, 鴈 1—①, 鴛鴦 1—①, 鳥 1—①, 啄木鳥 1—①, 鶯 1—①, 燕 3—④.
- ③ 獸: 鼠 3—③, 猿 1—①, 貓 2—②, 犬 1—①, 牛 1—①.
- ④ 鱗介: 蟹 1—①, 魚 ③—③.
- ⑤ 昆蟲: 蟬 3—④, 蟾 1—①, 蛙 1—①, 蝸 1—①, 蠐 2—②, 蛛 2—②, 蠅 4—⑤, 蠶 2—②, 促織 1—①, 螢 2—②, 蛾 1—①, 蒼蟲 1—①, 虱 3—③, 蚤

25) 《全集》卷 4는 7絕 43首의 〈開元天寶詠史詩〉로만 이루어져 있다. 徐首生은 〈開元天寶詠史詩〉에 속하는 〈荔支〉, 〈木芍藥〉, 〈花妖〉, 〈醒醉草〉, 〈金粟環〉, 〈辟寒犀〉, 〈金籠蟋蟀〉, 〈龍腦禪〉등의 작품을 詩題가 物名으로 되어 있다는 단순한 시각에서 詠物詩로 보고 있으나(徐首生, 앞의 책, pp. 129~130), 이들 작품은 詠史詩로 보아야 할 것이다. 그러므로 《全集》卷 4에는 詠物詩가 一首도 없다고 본다.

26) 陳祝三, 〈李奎報研究〉(成均館大學校 大學院 博士論文, 1977), p. 8.

1—①.

植物

- ⑥ 葉：李 3—③，橘 4—⑥，柿 7—②，榴 1—①，櫻桃 2—②，林檎 2—②，桃 5—⑧，栗 1—①，柑 6—⑧，梨 6—⑨，枳 1—①。
- ⑦ 穀：稻 1—①，新穀 1—①，稻稻 1—①。
- ⑧ 蔬：瓜 2—②，蔥 1—①，芹 1—②，菌 1—①，苽 1—①，茄 1—①，青 1—①，葱 1—①，葵 1—①，瓠 1—①，土卵 4—②。
- ⑨ 花：梅花 2—②，石竹花 1—①，花 12—④，杏花 2—②，桃花 2—②，李花 3—③，櫻桃花 2—②，芍藥花 3—③，薔薇花 3—③，四季花 2—④，菊花 13—⑩，瑞祥花 1—①，石榴花 2—②，梨花 2—③，牡丹花 8—②，金錢花 2—②，木筆花 1—①，海棠花 2—②，蜀葵花 1—①，槿花 1—①，冬栢花 1—①，松花 1—①，黍飯花 1—①，地棠花 4—④，御留花 1—①，鷄冠花 4—⑥，鳳翔花 3—③。
- ⑩ 草：芳草 2—②，石菖蒲 2—②，草 1—①。
- ⑪ 木：桐 2—1 $\frac{1}{2}$ ，柳 1—③，楊 2—②，矮松 1—①，竹筍 4—④，相磨木 1—①，桑 1—1 $\frac{1}{2}$ ，蒲桃 1—①，大樹 1—①，栗樹 1—①。

自然物

- ⑫ 自然現象：月 7—7 $\frac{1}{2}$ ，雨 19—②，雪 25—⑤，雷 1— $\frac{1}{3}$ ，雹 3—3 $\frac{1}{3}$ ，風 3—2 $\frac{1}{3}$ ，雲 2—1 $\frac{1}{2}$ ，塵 1—①，日蝕 1—②，電 1—①。

人工物

- ⑬ 文房：筆 2—②，硯(硯 1—①，破硯 1—①，硯池 1—①)，硯滴 1—①，硯匣 1—①，墨 2—①。
- ⑭ 武器：해당 작품 없음.
- ⑮ 樂器：琴 17—②，琵琶 1—①，笛 2—②，笙 1—①。
- ⑯ 巧藝：畫族子(夾竹桃花 1—①，蓼花白鷺 1—①，魚 1—①)，畫(魚 1—①，虎 1—①，竹 1—①，牡丹 2—⑦)，圖(白鶴 1—①，雙鷺 1—①，雙馬 1—①，鷺鷥 1—①，勸酒 1—①，華夷 1—①)，畫屏風(老松 1—①，盤松 1—①，老檜 1—②)，草書 1—①，墨竹 3—⑥，寫真 3—④。
- ⑰ 器用：扇(松扇 2—②，扇 3—③，月傾扇 1—①，鶴翎扇 1—①)，蓆 1—①，素屏 1—①，竹夫人 1—①，瓶(鐵瓶 1—①，玉瓶 1—①)，杖(朱藤杖 1—①，藜杖 1—①，躑躅杖 2—⑤，柱杖 3—④)，木如意 1—①，綠瓷盃 1—①，橘盞 1—①，折足盤 1—①，燈籠 3—⑧，茶磨 1—①，綠瓷枕 1—①，風甌 2—②，水精杯 4—④，酒旆 1—②，客舟 1—①，曆 5—⑤，氣毬 2—②，洋和子 2—②。
- ⑱ 雜玩：해당 작품 없음.
- ⑲ 寶玉：해당 작품 없음.

㉔ 冠服: 裙 1—①, 草履 1—①, 紫衣 1—①, 犀帶 1—①, 鞞帶 3—⑤.

㉕ 飲食: 茶 5—⑤, 酒 8—⑨, 藥 1—②, 餛飩 3—⑤.

이상의 결과를 통해, 우리는 이규보 詠物詩의 題材의 多樣性에 놀라지 않을 수 없다. 우리 漢詩史上 이토록 다양한 題材를 읊은 詩人이 또 있을까 할 정도로 日常生活의 주변에서 체험의 대상이 되는 모든 사물을 詩로 表現하고 있다.

이와 같은 결과는 무엇을 의미하는 것일까?

이규보는 “予論之曰詩者與所見也”²⁷⁾라고 한 바 있는데, 이것은 “詩的 表現對象 곧 수많은 素材들이 우리의 性情 즉 翫作心理를 자극하여 일어나는 생각이나 느낌을 文字에 정착시킨다는 見解”²⁸⁾로 풀이해서 무방할 것이다. 이는 劉勰이 《文心雕龍》〈明示篇〉에서 “人稟七情 應物斯感 感物吟志 莫非自然”이라고 한 것과 통할 수 있는 것이지만, 이규보는 그가 제시한 詩의 命題에 대해 실제의 詩作을 통해 그 자신 구체적으로 답하고 있는 셈이다.

이규보는 〈驅詩魔文〉에서 詩魔의 罪狀을 다섯가지로 나누고, 그 세번째로

雲霞之英 月露之粹 蟲魚之奇 鳥獸之異 與天芽抽蓐敷 草木花卉 千態萬貌 繁天麗地 汝取之無愧 十不一棄 一囑一吟 雖然全至 攢羅戰焉 無有窮已 汝之不兼 天地所忌 是汝之罪三也²⁹⁾

라고 하여 雲霞·蟲魚·鳥獸·草木·花卉 등의 千態萬象을 있는 그대로 모조리 읊는다고 했다. 실제 그는 月, 雨, 雪, 雷, 雹, 風, 雲, 電 등과 蟬, 蟾, 蛙, 蝸, 蟻, 蛛, 蠅, 蠶, 促織, 螢, 蛾, 蓐蟲, 虱, 蚤 등 뿐만 아니라 數十種의 꽃들에 이르기까지 그가 보고 체험한 對象인 常形의 世界를 詩로 表現하고 있다. 그는 生活周邊에서 접촉한 사물이면 예외 없이 관계를 맺고 있으니, 아이들이 나무에 건 風甌, 부러진 술, 침실 곁에 난 돌버, 심지어 문틈으로 들어오는 햇빛 속의 먼지까지도 詩로 表現하고 있다. 그가 자기 생애 중에 지은 作品이 8000餘首나 된다³⁰⁾고 한 점을 생각할 때 그가 지은

27) 〈王文公菊詩議〉《後集》11, p. 555. 《東國李相國集》의 面數를 表示할 때는 먼저 《東國李相國集》의 卷數와 《高麗名賢集》1. (成均館大學校 大東文化研究所, 1973)의 面數를 표시한다. 그리고 略하여 《全集》, 《後集》으로만 표시한다. 이하 같음.

28) 金周漢, 〈白雲文學研究—특히 論과 評을 中心으로—〉《語文學》32. (韓國語文學會, 1975), p. 140.

29) 〈驅詩魔文〉《全集》20, p. 216.

30) 予自弱齡 嗜作詩想 平生所著 無慮八千餘首 乃緣人取去不還 或焚葉 或見失 掃箱筐無遺矣〈與俞侍郎升且手問〉《全集》27, p. 296.

詠物詩는 數千首에 이르리라고 짐작된다. 그러기에 그가 “每寓興觸物 無日不吟”³¹⁾이라고 한 말도 결코 과장된 말이 아닐 것인 바, 그는 物을 통해 詩作을 生活化하고 있는 것이다.

그러면서 그는 題材를 선택함에 있어 남다른 見解를 가지고 있었다. 밤(栗)을 두고 쓴 詩 并序에, “밤은 사람에게 이로움이 많아서 아가위(楂)·배(梨)·귤(橘)·유자(柚)처럼 잠깐 목을 축일 뿐만이 아니다. 그러나 고인의 詩集에는 밤을 읊은 것이 거의 없다. 그래서 나는 이를 읊는다”³²⁾라고 했다. 이어서 밤은 생활과 밀접한 관계가 있으므로 詩의 중요한 題材가 됨이 당연하다는 입장을 詩를 통해 밝히고 있다. 이처럼 詩의 題材를 선택함에 있어서 옛사람이 읊었기 때문에 자기도 읊는 식이 아니라 구체적인 체험 속에서 느낀 바가 있으므로 읊는 것이다. 이와 같이 새롭게 참신한 題材의 발굴은 이규보가 지닌 실질적인 思考의 반영이다.³³⁾

이처럼 이규보는 새로운 素材의 발굴을 통해 素材의 영역을 확장시켜 나갔으며, 구체적인 체험 속에서 物의 存在를 인식하면서 체험한 바의 모든 사물을 예리한 觀察力과 섬세한 感受性을 통해 詩化하는 한편, 끊임없이 物과의 관계를 새롭게 인식하고자苦心하였다. 이와 같은 이규보에게 있어 物은 詩의 근거이며 詩는 다름아닌 物을 대상으로 한 言語일 수 있는 것이다.

Ⅳ. 李奎報의 詠物詩의 內容

이규보가 남긴 詠物詩 中에는 次韻과 和答, 贈答詩 외에도 즉흥적으로 지은 작품이 상당수 있고 보면, 모든 作品이 文學的인 意味를 지닌다고 할 수는 없을 것이다. 그러므로 여기서는 이규보 詠物詩의 독특한 性格을 비교적 뚜렷이 보여준다고 생각되는 作品들을 中心으로 그의 詠物詩의 詩世界를 조명해 보고자 한다.

1. 物의 形容描寫

詠物詩를 남기고 있는 詩人의 詩의 能力은 일차적으로 物의 형상을 묘사하

31) 〈白雲小說〉, p. 576.

32) 栗實利人多矣 非若楂梨橘柚之特一時 解煩而已 然古人詩集中 賦者 蓋寡 予爲賦之 〈栗詩序〉《全集》16, p. 171.

33) 金時鄴, 〈李奎報의 新意論과 詩의 特質〉《韓國漢文學研究》第3·4合輯(韓國漢文學研究會, 1979), p. 149.

고 있는 작품을 통해서도 그 優劣을 가려볼 수 있다. 常形描寫의 工整性 여부는 쉽게 드러나게 되므로 物의 형상묘사라는 것도 생각처럼 그리 쉬운 일만은 아니다. 그러므로 대개의 작가는 句節마다 故事를 인용하고자 할 것이고, 능력이 모자라는 자는 아예 常形이 없는 사물을 선택함으로써 자신의 미숙함을 감추고자 할 것이다.

이규보는 그 자신 “寫形雖髣髴 佳處殊未遇”³⁴⁾라고 말하고 있듯이 物의 형상묘사에 뛰어난 솜씨를 발휘하고 있다.

崔滋는 주관적이긴 하지만, “大抵體物之作 用事不如言理 言理不如形容 然其工拙 在乎構意造辭耳”라는 입장에서 이규보의 다음 작품을 두고 “文順公形容甚工”³⁵⁾이라고 높이 평가하고 있다.

〈蟾〉³⁶⁾

靡羣形可憎, 爬齧行亦澁,
群蟲且莫輕, 解向月宮入.

이규보의 세밀한 형용묘사는 다음과 같은 작품에서 더욱 드러난다.

〈得南人所館鐵瓶試茶〉³⁷⁾

猛火服悍鐵, 剝作此頑硬,
喙長鶴仰顧, 腹脹蛙怒迸,
柄似蛇尾曲, 項如鼉頭癭,
窪却小口甌, 安於長脚鼎,

一下略一

鐵瓶의 긴부리, 볼록한 배, 굽은 자루, 목, 입, 다리 등 細部에 이르기까지 예민한 관찰을 통해 세밀하게 묘사하고 있다. 대상을 보는 시각이 관념적이거나 추상적이지 않고 실제적이고 구체적이다.

詠物詩의 地位 및 價値는 物質世界보다는 生命世界과 心靈世界에 있어서 作者生命을 投入하는 데 있다는 見解³⁸⁾에서 본다면, 이와 같이 常形에 충실한 詠物詩는 문학적 가치가 별로 없을지도 모른다. 그러나 이러한 이규보의 詠物詩는 그것대로 충분한 意義를 지니고 있다. 그 하나로서 法에서 출

34) 〈朴君玄球家賦雙鷺圖〉中 9·10句, 《全集》8, p. 90.

35) 崔滋, 《補閑集》卷中.

36) 〈群蟲詠八首〉中 其一, 《全集》3, p. 38.

37) 《全集》3, p. 40.

38) 黃永武, 앞의 論文, p. 174.

발하여 부단히 法을 익히며 그 익힌 法 위에서 다시 새로운 法을 변화창출할 수 있다는 점을 들 수 있겠다. 蘇軾이 말한 것처럼, 張長史가 몇대로 草書를 휘갈겨 썼지만, 楷書, 行書書法을 草書書法의 기본으로 變容시킨 결과 예술의 최고경지인 神逸의 경지에 도달하였듯이³⁹⁾ 이규보 역시 物의 형용묘사에 충실한 詩를 통해 구체적인 체험 속에서 物과 밀착하면서 끊임없이 物과의 관계를 새롭게 인식하고자苦心하였기 때문에 神逸의 경지에 도달할 수 있었을 것이다. 형용묘사에 충실한 이규보의 詠物詩는 이러한 의미에서 이해될 수 있을 것이다.

2. 物의 精神과 本質규명

이규보의 詠物詩의 또 다른 樣相은 事物에 內在하고 있는 精神과 本質을 밝혀보고자 하는 것이다. 그는 현상세계를 초월하여 對象에 內在해 있는 영혼의 세계를 추구하고자 하였다. 이 점은 이규보가 말한 바 있는 「新意」와도 관련된다.

常形을 극복 초월하여 千變萬化하는 常理의 세계를 추구하므로 天然의인 재창조의 경지(神逸)에 도달할 수 있는 原理, 그것이 바로 「法」이며 그 法을 따라 變化되는 창조의 過程 즉 부단히 연속되어 나가는 생명의 실체가 모두 新意다.⁴⁰⁾

이렇게 봤을 때, 다음 작품은 對象과 作者가 調和를 이룬 가운데 直觀에 의한 新意創出을 통해 神逸한 경지에 도달하고 있다.

〈溫上人所蓄獨書驚鷺圖〉⁴¹⁾

君不見翰林筆下曾解道心閑,	來去獨立沙洲傍,
何人畫手得神授,	丹青妙意旁瞻仙腸,
我初未識畫工趣,	支頤倚壁私商量,
既寫江湖奇絕致,	何不畫漁人舟子來往遊徜徉,
既寫驚鷺得意態,	何不畫游魚走蟹出沒行洋洋,
潛思默課始自知,	意所未到於焉藏,
白鷺見人處,	拂翼沙頭決爾一起驚飛翔,
白鷺窺魚時,	植足葦間聳然不動難低仰,

39) 洪瑛欽, 〈李奎報의 文體革新에 대한 探討〉《民族文化論叢》第2·3輯(嶺南大學校民族文化研究所, 1982), p. 19.

40) 같은 論文, pp. 20~21.

41) 《全集》10, p. 119.

那教雪客閑放態,
此意識者小,

遺作黃雀多驚忙,
吾作歌詩始翼揚.

이규보는 위의 作品에서 畫中の 妙意와 趣를 이야기하고 있다. 그는 〈朴君玄球家賦雙鷺圖〉에서 멋있게 畫中の 趣를 묘사하고 있다⁴²⁾고 한 바 있지만, 사실 세상 사람들이 얻기 어려운 것이 오직 趣⁴³⁾인 것이다. 그렇다면 이규보는 어떻게 하여 妙意와 趣를 깨달을 수 있었는가? 入妙는 入神이나 入妙悟의 뜻으로 볼 수 있으나, 妙悟에 든다는 것은 놀랄만한 깨달음이나 直觀의 포착이라 할 수 있다. 興趣는 自然에 대한 詩人의 觀照에 의하여 고무된 感情狀態라 할 수 있다.⁴⁴⁾ 그러기에 이규보는 12句의 表現처럼 생각만으로는 그림 속에 숨겨져 있는 妙意와 趣에 이르지 못한다는 것을 알고 있다. 그러한 이규보로서 妙意와 趣를 깨달아 '詩로써 들추어 낼 수 있게 된 것은 對象을 올바르게 꿰뚫을 수 있는 觀照와 直觀의 능력이 뛰어났기 때문일 것이다. 이규보는 觀照와 直觀에 의해 對象의 本質에 도달하는 神逸한 경지에 이르른 것이다.

이러한 直觀의 포착은 다음 작품에서 보다 분명하게 드러난다.

〈蓼花白鷺〉⁴⁵⁾

前灘富魚蝦， 有意劈波入，
見人忽驚起， 蓼岸還飛集，
翹頸待人歸， 細雨毛衣濕，
心猶在灘魚， 人道忘機立。

東洋의 花鳥畫는 靜物畫로서 보다는 自然의 風景畫로서 翫賞되고 있는⁴⁶⁾바, 이규보도 傳統의인 認識態度나 凡眼을 지니고 있는 데 불과하였다면 蓼花와 白鷺가 있는 그림 족자를 보고 그것의 背後의 風景을 충실히 묘사하고자 애썼을 것이다. 그것을 靜物畫로 받아들였다 하더라도 白鷺의 虛像만 보고 '忘機立'하다고 하였을 것이다. 그러나 이규보는 白鷺가 가는 비를 맞으며 여뀌꽃 핀 언덕에 서 있는 그림을 단순히 風景畫나 靜物畫로서 받아들

42) 我詩豈好事 聊寫畫中趣〈朴君玄球家賦雙鷺圖〉中 19. 20句 《全集》8, p. 90.

43) “世人所難得者唯趣” 劉若愚, 李章佑譯, 《中國文學의 理論》(汎學圖書, 1978), p. 156에서 再引用.

44) 같은 책, p. 82.

45) 〈月師方丈畫族二詠〉中 其二, 《全集》2, 29.

46) 白琪洙, 《美學》(서울大學校 出版部, 1981), p. 14.

이는 데서 벗어나 直觀을 통해 白鷺의 本性을 밝히고 있다. 이규보의 直觀에 의해 白鷺는 앞 여울의 고기와 새우를 호시탐탐 노리고 있는 機心을 지닌 存在임이 여지없이 밝혀지고 만 것이다.

한편으로 이규보는 自然現象과 그저 단순히 접촉하는 데서 벗어나 그 本質을 규명하고자 하였다. 그는 <驅詩魔文>에서

地尚乎靜 天難可名 智乎造化 勝若神明 沌沌而漠 渾渾而冥 機開悶遠 且鑄且肩 汝不是思 偵深謀靈 發洩幾微 搪突不停 出賁兮月病 穿心兮天驚 神爲之不念 天爲之不平 以汝之不平 以汝之故 薄人之生 是汝之罪二也⁴⁷⁾

라고 하여 天地의 영혼을 정탐하고 그 기미를 누설하여 달의 이치를 밝혀내는 등 自然의 神秘를 캐내고자 하였다. 이 역시 對象에 內在해 있는 精神世界에 도달함으로써 神逸한 경지에 이르고자 한 말과 다름 아니다.

이규보는 傳統的으로 詠物詩의 題材가 되어 온 눈(雪)을 여러 首 읊고 있는 바, 그 中에는 다음과 같은 작품이 있다.

<詠雪>⁴⁸⁾

古今形容語已陳, 欲裁新意倒前人,
豈知爾反令心若, 不入詩來入贅新.

新意를 創出하고자 하는 그의 苦心을 엿볼 수 있는 작품이다. 이러한 태도를 지닌 이규보는 눈을 형용묘사하고자 하는 진부한 태도에서 벗어나 눈(雪)의 神秘를 캐내고자 한다. 그는 다른 <詠雪>詩⁴⁹⁾에서 “天機秘難詰”이라고 하고 있지만, “詳看六出巧”하는 세밀한 관찰을 통해 여섯모의 結晶體의 神秘를 캐내고 있는 바, 이것이야말로 옛사람을 압도할 수 있는 新意일 것이다.

그는 <妬花風>⁵⁰⁾에서도 꽃이 필 때 부는 바람을 미친바람이라고만 보아버리는 당시의 觀念論의 世界觀을 지닌 사람의 잘못을 지적하면서 바람이 지닌 生成의 秘密을 규명하고자 하였다.

또, 이규보는 分析的, 探求의 思考와는 정반대라 할 수 있는 虛構的, 說話的 發想에 의해 物의 生成秘密을 詩化함으로써 物의 本질을 규명하려고 한다.

47) 《全集》20, p. 216.

48) 《全集》16, p. 178.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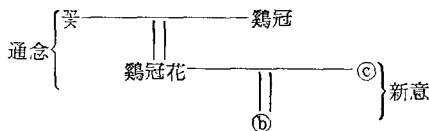
49) 《全集》16, p. 179.

50) 《全集》14, p. 155.

〈鷄冠花滿苑盛開自夏至秋季愛而賊之仍遂李百全學士同賦〉⁵¹⁾

花於曠地似或慳,	開壇一園眞盛矣,
百花開謝只春夏,	憐渠沙夏入秋季,
〔何人始作鷄冠呼,	高髻鮮紅無奈似,〕 ^㉔
〔我疑昔者有鬪鷄,	忽逢強禦至必死,〕
朱冠赤幘灑血落,	綿繡離披紛滿地,〕 ^㉕
物靈不共泥壤朽,	直作芳華添醞紫,〕
鷄□□□□□□,	□□□態尙自爾,
〔臨風掀學好昂頭,	又欲與敵相奪肢,〕 ^㉖
宜哉去汝驕矜心,	但可勤開邀賞耳.

鷄冠花라는 명칭은 맨드라미꽃이 마치 닭뿔처럼 생겼기 때문에 붙여진 이름인데, 이구보는 이와 같이 外面的 現象에서 얻어진 一般的인 認識에서 벗어나 對象의 本質을 규명하고자 한다. 붉고 고운 상투 때문에 鷄冠이라 이름 지은 것(㉔)이 通念이라면, ㉕는 通念을 벗어난 新意라고 볼 수 있다. 이때의 新意는 繼起的 心象에 의해서 얻어지는 바, 이것은 說話의 發想에 起因한다. 꽃과 鷄冠과의 관계에서 얻어진 ‘鷄冠花’가 바람에 흔들리는 모습을 ㉖로 파악하고 있다. 일단 ㉖로 파악된 心象은 다시 ㉕로 發展하게 되는데 이것이 繼起的 心象이다. 이러한 관계를 圖式化하면 다음과 같다.



3. 寓意와 諷刺

이번에는 寓意와 諷刺의 作品을 살펴보도록 한다.

〈四月十一日與客行園中得薔薇於叢薄間久爲凡卉所因生意甚微子即薙草封植埋以土撐以架後數日見之葉既繁茂花亦曄盛於是因物有感作長短句以示全覆之〉⁵²⁾

라는 작품은, 詩題에서 밝히고 있듯이, 생활주변에서 손쉽게 볼 수 있는 장미를 가꾸어 준 사실을 읊은 詩로서 內容도 대부분 그것에 관한 것이다.

51) 《後集》5, p. 492.

52) 《全集》5, pp. 63~64.

그러나 장미와 雜草의 관계 속에는 강한 寓意가 담겨 있다. 오랫동안 풀들에 서달려 장미의 생기가 매우 미약하다는 것도 비유적인 표현이다. 장미는 뛰어난 人材를, 잡초는 讒臣을 상징한 말일 수도 있다. 庭園이라는 것도 임금이나 武臣政權을 둘러싼 朝廷의 정치무대를 가리킨다. 이러한 점은 마지막 12句에서 분명히 드러나고 있다.

寓物詭深意,	靜坐復深思,
若此非獨花,	凡物亦如之,
欲見明月珠,	先灑泥沙溜,
欲求后妃賢,	無使寵嬖隨,
欲擇人材秀,	先去讒邪欺,
此詩有深味,	莫教兒輩知,

당시 朝廷에서 벌어지고 있는 政治狀況을 寓意的으로 보여주고 있는 이 詩에서는 雜草(讒臣)을 제거하자 장미(어진 人材)가 무성히 자라서 꽃이 활짝 핀 것으로 되어 있으나 現實은 그렇지 못하다. 이러한 諷刺의 소리조차 새어나가는 것을 꺼리는 마지막 2句의 표현을 통해서 짐작되는 바이다.

앞의 詩에서는 마지막 16句로 인해 ‘장미’와 ‘잡초’ 속에 담긴 寓意的인 표현이 그런대로 쉽게 파악되지만 다음 작품의 경우에는 그렇지 못하다.

〈蛛網〉⁵³⁾

蜘蛛乘秋侯,	緣霑工織網,
蟬足行掛絲,	疾若梭來往,
兒童黏以竿,	遺片隨風颺,
須臾復結成,	織細不堪望,
飛蟬誤見絀,	空作繰車響,
蝴蝶亦來縈,	翻翻徒自強,
我本疾網蟲,	呼奴釋且放,
凡者血氣者,	口腹誰不養,
大則虎與熊,	擇獸行毆掌,
小則鷄與鷄,	啄蟲於糞壤,
若此非一類,	胡獨憎爾狀,
機巧吾所忌,	汝巧誰與伉,
吐絲細於蠶,	不惜腸中絃,

53) 《全集》14, p. 156.

以此引癡蟲，焉得不見誑。

이 詩에서는 어리석은 벌레와 거미를 등장시켜, 讒臣의 奸計와 謀陷에 의해 희생당하는 어진 人材들의 슬픔을 읊으면서 讒臣들을 諷刺하고 있다. 거미가 실을 거는 데 바로 나가지 않고 뒷걸음질치는 것부터가 正道가 아니다. 아이들의 낚시대로 比喻되는 政治的인 철퇴가 내려져도 그것은 한 때 뿐, 그들은 순식간에 地位를 회복한다. 9~12句에서는 희생당한 어진 人材들의 슬픔과 원통함을 선명하게 보여준다. 짐승(弱者)을 잡아 먹는 큰 벌(强者)도 밉지마는 그보다 거미를 더욱 미워하는 것은 機巧때문이라고 했다. 즉 奸計에 있다는 말이다. 마지막 4句에서는 人材들이 讒臣들의 謀陷에 의해 함정에 빠지는 과정을 비유적으로 보여주고 있다. 그러므로 本詩는 “혀가 있어도 말 못하고, 눈이 있어도 눈물을 내지 못하는”⁵⁴⁾ 現實을 동물을 내세운 寓話的 手法을 통해 성공적으로 諷刺하고 있다고 하겠다.

이규보는 이러한 作品들 외에도 自己의 孤高한 真正이나 懷才不遇, 現實指向性 등을 표현하기 위해 寄託의 手法을 자주 사용하고 있다.

〈詠筆管〉⁵⁵⁾

憶爾抽碧玉，孤直挺寒林，
風霜苦不死，反見鋒刃侵，
誰將獨夫手，剝出比干心，
爲汝欲雪憤，當書直言箴。

이 作品에서는 自己의 孤高한 真正을 뾰족한 붓의 모습에 비유해 寄託하고 있다.

〈詠桐〉⁵⁶⁾

漠漠陰成幄，飄飄葉散圭，
本因高鳳植，空有衆禽栖。

봉황새 보려고 심은 오동나무에 못새들만 깃든다는 것은 理想과 現實의 괴리를 말해주는 것으로써, 오동을 통해 현실과 괴리된 懷才不遇한 자신의 모습을 寓意的으로 보여주고 있다.

54) 有舌不可掉 有眼不可泣 〈感興〉 1·2句 《全集》 8, p. 98.

55) 《全集》 1, p. 18.

56) 《全集》 1, p. 19.

〈紅榴始熟珪公乞詩〉⁵⁷⁾

楨那撐枝幾許枚, 滿林欹倒醉中腮,
紅綃囊裡藏紅粒, 要見霜風啓拆開.

이 作品은 이규보가 宦路에 나가지 직전인 29때 지은 것으로서 단순히 막 익은 붉은 석류를 묘사하고자 지은 것은 아니라고 본다. 그는 붉은 석류를 통하여 자신의 처지와 意志를 비유적으로 나타내고자 한 것 같다. 2句는 당장이라도 重用만 된다면 훌륭히 經綸을 펼 수 있을 정도로 자기의 力量이 무르익어 있음을 暗示한 것이 될 것이다. 그렇지만 現實이 如意치 않아 자기의 抱負와 力量을 드러내지 못하고 있는 것이지(3句), 언제라도 자기를 인정해 줄 實權者나 기회(霜風)를 만나면, 마음껏 자기의 力量을 발휘하여 抱負를 실현코자 함(4句)을 暗示하고 있다.

4. 戲作과 嘲諷

이규보의 詠物詩 中에는 嘲諷의 性格을 지닌 詩篇들과 장난삼아 지은 戲作詩가 적지 않게 발견되는 바, 예를 들면 〈戲李君中敝縫裙〉, 〈戲贈美人〉, 〈戲友人製冠〉, 〈戲路上醉臥僧〉, 〈戲作雨中小牡丹歌〉, 〈嘲折足鎧〉, 〈鴛鴦戲作〉, 〈嘲醉僧夜起嚼〉, 〈朝唾僧〉, 〈炤井戲作〉, 〈聞批職僧犯戒被刑以詩戲之〉, 〈嘲李道士〉, 〈頭童自嘲〉, 〈戲題舊筆〉, 〈自嘲〉, 〈己亥正旦飲神明丹戲作〉 등이 있다. 그 중에서도 중(僧)들을 희롱한 作品이 4首나 있음이 주목된다.

〈聞批職僧犯戒被刑以詩戲之〉⁵⁸⁾

勿論髮在與頭鬚, 好色人心慾一般,
不有如來神呪力, 摩登幾已誤阿難,
此髡謀拙被人擒, 國令何曾一一尋,
任遣生雛皆狀大, 盡驅南畝力耕深.

僧帖을 받았던 중이 여자를 범하다가 형을 받았다는 소식을 듣고 지은 戲作詩이다. 高麗朝에서 佛教는 國敎로서 대접을 받고 있었으며, 이규보 자신도 禪僧들과 폭넓은 交遊關係를 맺고 있었지만, 이 작품에서는 그러한 사실과 관계없이 破戒僧을 실랄히 풍자하고 있다. 아이들을 낳게 내버려 두었다가 모두 장대하기든 모두 논밭으로 내몰아 농사 짓게 하라는 작가의 해학적

57) 《全集》6, p. 71.

58) 《後集》1, p. 448.

인 표현 속에서 불교의 타락상에 대한 날카로운 비판정신을 엿볼 수 있다. 戲作이라題하고 있지만 단순히 遊戲的인 태도에서 지은 작품이 아니며 그 內面에는 嘲笑的인 意識이 짙게 깔려 있다.

〈戲作雨中牡丹歌〉⁵⁹⁾

春欲去萬物各悵然，	相將欲設餞春筵，
烟籠高柳展翠幙，	霧爲祖帳張其前，
落花先作錦茵鋪，	餘花含露涕漣漣，
蝶隨蜂是餞春體，	蝶隨蜂嘗灑以雨，
鶯爲送春歌，	鶯爲送春舞，
東君大醉倒且顛，	是夜不去許留連，
夜深欲命薦枕女，	桃頤杏靨無可憐，
唯有花王小女子，	年少嬌饒顏最美，
此花是夜嫁東君，	含羞尚未開笑齒，
東君貪翫留數日，	日夕花心方旖旎，
炎帝殿裏交代來，	東君歸意何由弭，
君去也花慘然，	紅臉至今猶帶淚，

이 작품 역시 戲作詩이지만 단순히 遊戲的인 작품이라고 보아 버리기에는 作者의 感受性이 너무나 예민하다. 이 작품은 繼起的 心象에 의해서 이루어지고 있다. 비를 맞고 있는 작은 모란꽃에서 님과 離別한 후에 눈물짓고 있는 女人의 모습을 떠올린 이규보는 離別前의 狀況을 類推해낸다. 그리하여 만남을 떠올리고, 그들의 만남은 東君이 크게 취해 하룻밤 묵었기 때문이며, 그것은 잔치에 의해서 임도 끌어낸다. 즉, 이 詩에서는 繼起的 心象에 의해, 靜的인 對象인 “雨中牡丹”에서 잔치→만남→이별이라는 하나의 사건을 類推함으로써 動的인 心象으로 바꾸고 있다.

이처럼 이규보의 戲作詩는 유희적인 산문이라고 하더라도 그 내면에는 작가의 嘲笑的인 意識이 짙게 깔려 있으며, 섬세한 感受性에 의해 心象을 처리하고 있음도 들보인다.

5. 觀念의 具體化

이규보의 詠物詩가 지닌 또 하나의 內容的 特性으로 抽象的인 觀念을 物을 통해 具體化시키고 있는 점을 들 수 있다.

59) 《全集》10, pp. 119~120.

〈素屏〉⁶⁰⁾

君看五侯家,	黃金柱北斗,
墻壁煥丹青,	土木衣錦繡,
坐張百寶屏,	仙鬼互馳驟,
那憂永谷寒,	只詫銅山富,
百年歸山丘,	等是一丘土,
我有一素屏,	展作寢前友,
素月照我容,	白雲落我首,
翻思天地間,	此身亦假受,
求真了無眞,	一物非我有.

이규보는 素屏을 묘사하거나 本質을 추구하기보다는 그것을 통해 그의 人生觀을 피력하고 있다. 총 18句인 이 詩는 9.10句를 경계로 하여 前半部와 後半部의 판이한 상황으로 나뉘어진다. 前半部에서는 사치와 향락의 極에 달한 當代 貴族階級の 典型的인 生活相을 보여주고 있다. 그들이 百寶屏을 치고 산다지만 實相은 그렇게 여유있고 한가한 것만은 아니다. 거기엔 仙鬼가 분주하게 달리는 어지러움만 있을 뿐이다. 이에 비해 素屏을 펴 놓은 草堂에서의 生活은 自然과 自我가 同化되는 데서 오는 즐거움과 여유가 있다. 이규보는 素屏을 題材로 하고 있으나 素屏을 描寫하기보다는 五侯家와 草堂, 거기의 百寶屏과 素屏을 對照시킴으로써 이 作品의 主題(9. 10句)인 그의 人生觀을 선명히 부각시키고 있다.

이규보는 〈次韻李學士和鷄冠花詩二首〉⁶¹⁾에서는 萬花와 鷄冠花의 生命力的 長短이나 外的 形狀을 對照하고 있다. 이규보는 이러한 對照를 통해 永遠한 生命力和 아름다움은 人爲의인 꾸밈에 있는 것이 아니라, 투박하기는 하지만 그 素朴함과 自然스러움에 있다고 말하고 있다. 결국 이 詩는 이규보가 抽象的 觀念인 자신의 價値觀과 美意識을 鷄冠花를 통해 具體的으로 表出한 作品이라 하겠다. 그러므로 이 詩에서의 모란·작약은 “풍아의 깊은 뜻을 저버리고 外飾으로 丹青만을 빌려 한 때의 嗜好에 맞추고자 하는 당시의 詩 짓는 무리들”⁶²⁾을, 鷄冠花는 “뜻은 본래 자연에서 나오는 것”⁶³⁾임을 알고

60) 《全集》3, p. 37.

61) 《全集》5, p. 492.

62) …不思風雅義 外飾假丹青 求中一時嗜…〈論詩〉《後集》1, p. 447.

63) …意本得於天… 같은 글.

“千年 뒤에 물려줄만한 詩”⁶⁴⁾를 짓고자 하는 이규보 자신의 詩를 비유적으로 보여주고 있는 셈이다.

V. 맺 음 말

이상으로 李奎報의 詠物詩의 全體的 樣相을 살펴보기 위한 예비적 작업으로서 詠物詩의 概念과 範疇를 檢討·規定한 다음, 그에 따라 題材를 整理·分析하고 나아가서 作品의 內容을 살펴보았다. 그 요지를 간추려 보면 다음과 같다.

(1) 詠物詩는 人物, 動物, 植物, 自然現象 및 巨大한 施設物을 제외한 人工物을 題材로 하여 읊은 詩로서, 그 範疇로는 人間, 禽, 獸, 鱗介, 昆蟲, 菓, 穀, 蔬, 花, 草, 木, 自然現象, 文房, 武器, 樂器, 巧藝, 器用, 雜玩, 寶玉, 冠服, 飲食이 있다.

(2) 이규보의 詠物詩는 580首로 전체 작품의 28%에 해당한다. 작품의 빈도에 있어서 植物>人工物>自然現象>動物>人間的 순으로 나타나고 있다. 이 중 植物은 전체 詠物詩의 39%를 차지하고 있고, 範疇面에서 보면 ‘花’가 18%를 차지하고 있어 가장 큰 관심의 대상이 되고 있음을 알 수 있었다.

그의 詠物詩의 題材를 範疇別로 정리해 본 바, 그 題材가 꽤 多樣함을 알 수 있었다. 그는 구체적인 체험 속에서 物과 諸關係를 맺으면서 체험한 바의 모든 사물을 詩化함으로써 詩作을 生活化하였다. 그리고 物과의 관계를 끊임없이 새롭게 인식하고자 苦心하는 한편, 새로운 소재의 발굴을 통해 소재의 영역을 확장해 나갔다.

(3) 이규보는 예민한 관찰력을 통해 物의 形容을 描寫하는 데 뛰어난 솜씨를 보여주고 있는데, 이를 통해 神逸의 경지에 도달할 수 있는 밀바탕을 쌓고 있으며, 구체적인 자기 체험을 통해서도 詩的 直觀에 도달할 수 있는 밀바탕을 쌓고 있다.⁶⁵⁾ 또 그는 現象世界를 초월하여 대상에 內在해 있는 영혼의 세계를 추구함으로써 物의 精神과 本質을 규명하고자 하였다. 그는 詩的 直觀, 分析的 思考, 說話의 發想 등을 통해 新意를 創出함으로써 神逸한 경지에 도달하고 있다. 그러면서 그는 寄託과 寓話의 手法을 통해 自己의 孤高

64) …足爲千載胎…〈詩癖〉《後集》I, p. 453.

65) Jacques Marirain, 金泰寬譯, 《詩의 美와 創造의 直觀》(성바오로 출판사, 1982), p. 144에서 “詩的 直觀으로서 도달된 결과에서 가장 직접적인 것은 세계의 사물들에 관한 체험이라고 생각한다.”고 말한 바 있다.

한 貞正, 懷才不遇, 現實指向의 欲望을 寓意的으로 표현하는 한편, 人材가 희생당하고 讒臣이 득세하는 當代의 정치상황을 諷刺하고 있다. 그의 戲作詩는 遊戲的 態度에서 지은 단순한 작품이 아니며 그 內面에는 嘲笑의인 意識이 짙게 깔려 있으며 예민한 感受性을 통한 心象처리 또한 뛰어나다. 그는 자신의 人生觀이나 價值觀, 美意識 등의 抽象的인 觀念도 物을 통해 具體的으로 表出하고 있다. 이처럼 그의 詠物詩는 폭넓은 詩世界를 지니고 있음과 아울러 文學的으로도 성공을 거두고 있다.